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과 자치경찰의 역할

김 중 곤*

[국문 요약]

지역 간 범죄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은 일관되게 주민의 활동이 범죄예방의 핵심요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선행연구는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범죄예방 활동은 주민 공동체의 부수적인 목적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전통적인 길거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활동에 집중되어 다양한 신종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둘째, 경찰의 보조자적 위치에 머물러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하다. 셋째, 주민의 참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활발히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한다. 둘째, 다수 대 다수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감시를 촉진한다. 셋째, 앞 사람의 포스팅과 댓글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 넷째, 주민들의 범죄두려움과 불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자치경찰은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모형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소셜미디어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종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는 등 네티지 형태의 개입 역시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져 활발하게 운영 중인 주민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범죄예방, 소셜미디어, 자치경찰, 주민참여, 집합적 효능감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E-mail: goni20@kmu.ac.kr

목 차

- I. 서론
- II. 주민참여 범죄예방의 이론적 배경
- III. 현재 주민참여 범죄예방의 문제점
- IV.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
- 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2021년 7월 1일자로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각 지자체 별로 자치경찰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생활안전 업무가 자치경찰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생활안전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지구대 인력은 국가경찰(112지령실)로 편성되어 있는 등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치경찰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2호는 자치경찰의 임무 중 첫 번째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전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등을 나열하고 있다. 생활안전 업무 중 경찰력의 직접적인 활용을 필요로 하는 순찰업무는 자치경찰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이나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은 현 시스템 하에서도 추진 가능한 업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 체제하에서 자치경찰이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역할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과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CPTED의 경우, 각 지자체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가로등 정비사업,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CCTV확충, 벽화그리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활동은 직접적인 범죄예방 활동과 무관한 주민 대상 홍보,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공모전 등에 치중되어 왔다.

사실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주민참여 범죄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집, 탄력순찰 등 다양한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변화하는 치안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주민참여 방식은 여러 가지 내재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절도, 강도와 같은 소위 길거리 범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주민 참여 범죄예방의 근간을 이루는 자율방범대는 여전히 오프라인 상에서의 순찰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순찰중심의 활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신종 성범죄, 보이스피싱, 관계폭력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인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단체가 경찰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형식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특히 변화하는 치안 여건 속에서 기존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의 한계를 고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부 해외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참여 지역수준 범죄의 편차를 설명하는 주요이론인 사회해체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및 2세대 CPTED 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의 성공요인을 고찰한다. 둘째, 현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논의한다. 셋째,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한다. 넷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참여 범죄예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변화하는 치안 여건에 부합하는 주민참여 범죄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경찰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주민참여 범죄예방의 이론적 배경

1. 사회해체이론

주민참여 범죄예방의 대표적인 근거 이론으로 사회해체이론을 들 수 있다. 사회해체이론은 20세기 초 이민자의 증가와 산업화로 급격하게 팽창한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학자들에 의해 태

동하였다. 특히 Park와 Burgess(1925)는 도시의 발달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는데, 도시는 안에서 밖으로 팽창하면서 발전하며, 어느 정도 발전한 도시는 5개의 동심원 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 중 전이지역은(transition zone) 도심지인 중심업무지구를 둘러싼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잦고 생활수준이 낮으며, 민족구성이 다양하여 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후 Shaw와 McKay(1942)는 Park와 Burgess(1925)의 동심원 이론에 착안하여 시카고 내 지역별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청소년범죄자의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한 후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시카고 내 지역별 청소년범죄자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전이지대는 거주민의 민족 구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높은 수준의 범죄율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도시 내 특정 지역의 범죄율은 거주민 개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Shaw와 McKay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사회해체라고 불렀으며, 사회해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가난, 잦은 이주, 이질적 주민구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즉, 가난, 잦은 이주, 이질적 주민구성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발견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 약화된 사회유대와 약화된 비공식통제라는 사회해체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높은 범죄율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Shaw와 McKay의 사회해체이론에 따르면, 지역 내 높은 범죄율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은 주민 간의 약한 사회적 유대와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지역을 통제하지 못하는 약한 비공식 사회통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Sampson(Sampson et al., 1997)은 주민 간 약한 사회적 유대와 약한 비공식적 통제만으로 지역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안전활동에 개입하려는 주민들의 의지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Sampson은 Shaw와 McKay가 제시한 기존의 사회해체 개념, 즉 주민간 유대, 비공식적 통제에 안전활동에 개입하려는 주민들의 의지적 요소를 추가한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집합적 효능감의 정도가 지역의 범죄율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선행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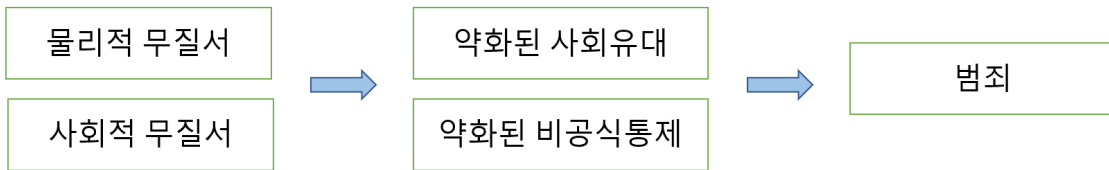
결국 사회해체이론이 지역의 범죄율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주민들간의 유대, 주민들에 의한 통제, 주민들의 범죄예방 의지이며, 이러한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주민의 역할이 결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2. 깨진 유리창 이론

Wilson과 Kelling(1982)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와 범죄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물리적 무질서를 방치하면 보다 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들의 묘사에 따르면(Wilson & Kelling, 1982, p31-p32), 무질서가 방치되면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주민들 중 일부가 마을을 떠나게 되며, 유대감이 없는 중립적인 주민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비행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며 문제를 일으켜도 마을에 애착을 가진 주민들에 의한 적절한 비공식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들을 가게 앞에서 쫓아내려다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Wilson과 Kelling(1982)의 묘사를 구조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eisburd et al., 2023). 먼저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는 해당 지역에 애착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던 주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두려움을 느낀 주민들은 해당 지역으로부터 이주를 하게 되고 낯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지역 내 사회적 유대의 감소와 그에 따른 비공식 통제의 감소는 결국 더 큰 범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에 이루어진 Weisburd 등(2023)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단순히 무질서와 범죄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비공식 통제의 감소라는 매개과정을 거쳐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을 환기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인과관계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깨진 유리창 이론의 인과관계 모형

결국 깨진 유리창 이론 역시 주민간의 약화된 사회유대와 약화된 비공식통제가 범죄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깨진 유리창 이론은 무질서와 범죄간의 관계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범죄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은 주민 간 유대와 주민 스스로 안전활동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통제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사회해체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깨진 유리창 이론의 관점에서 수행된 주요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무질서가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사회유대의 감소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범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Sampson과 Raudenbush(1999)는 무질서가 범죄에 유의미한 직접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Markowitz 등(2001)의 연구에서는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범죄두려움은 기존 거주민들의 이

탈을 증가시키며, 거주민들의 이탈은 사회유대를 감소시켜 강도범죄의 증가를 가져오는 인과 모형의 각 단계가 유의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Weisburd 등(2023)도 미국 볼티모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적 무질서가 주민들의 집합적 효능감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현재까지의 실증연구는 무질서가 직접적으로 더 큰 범죄를 야기하기보다는 사회해체이론의 매개변수들인 사회유대의 감소, 비공식사회통제의 약화, 집합적 효능감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의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3. 2세대 CPTED

범죄예방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또 다른 이론적 논의로 2세대 CPTED를 들 수 있다. 먼저 CPTED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는 용어는 미국의 범죄학자 Jeffery(1971)가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Jeffery(1971)는 범죄의 원인으로 사회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던 당시 학계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환경적 요인에 따른 범죄기회와 범죄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 Newman(1972)은 방어공간이라는 저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설계의 네 가지 요소로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2년 후 미국정부가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 첫 번째 CPTED 프로젝트의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Newman(1972)의 제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접근통제, 감시, 활동지원, 동기강화 등을 환경설계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렇듯 Jeffery(1971)와 Newman(1972)에 의해 제시된 CPTED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면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전 세계 다양한 후속 프로젝트들의 기본 원리로 활용되어 왔다.

다양한 CPTED 프로젝트들에서 주로 제시되는 요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역성은 특정한 지역의 소유권 표시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이 통제 받지 않은 상태로 해당 지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적 감시는 특정 지역을 합법적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건물이나 조경을 개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나 의심행위가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범죄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법이다. 이후 자연적 감시 외에 CCTV등을 이용한 공식적 감시까지 포괄하는 감시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이미지와 환경은 특정한 지역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재적 범죄자에게 보임으로써 해당 지역의 범죄를 감소하기 위한 기법을 의미한다. 접근통제는 합법적 용건을 가진 사람에 한해 지역출입을 허가하는 것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막다른 골목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자의 출입가능성을 제한하는 기

법이다. 목표물 견고화는 접근통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요소로서 범행대상이 쉽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상의 원리들은 모두 지역 사회의 물리적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잠재적 범죤자의 범죤의지를 차단하기 위한 기법들이다.

한편 Merry(1981)는 실증연구를 통해 CPTED의 원리에 따른 적절한 물리적 설계만으로는 기대하는 범죤예방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Merry(1981)는 방어공간이론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실시한 지역을 18개월 간 참여관찰 하였다.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은 자연적 감시의 원리에 따라 전면을 개방하고, 주택 간의 마당을 분리함으로써 영역성을 확보하였으며, 적은 수의 출입문을 사용하여 접근통제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주택에 잠금장치와 창문창살 등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견고화하였다. 이후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식 범죤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물리적 환경개선 노력이 범죤 수 감소나 범죤두려움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Merry(1981)는 참여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하였다. 첫째, 물리적 환경 설계가 완벽하지 않았다. 즉, 여전히 잠재적 범죤자가 범죤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둘째, 물리적 환경설계만으로는 주민들간의 상호작용이 향상되지 않았다.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하였으며, 낯선 이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며 마을을 배회하여도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 Merry(1981)는 특히 주민들의 상호작용과 범죤예방에 대한 의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즉, 아무리 훌륭한 물리적 설계를 갖추었다라도 그것만으로는 지역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Merry(1981)의 연구는 지역의 범죤을 예방하는 데 있어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Saville과 Cleveland(1997)는 이러한 관점에서 물리적 환경 설계에만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CPTED 논의가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2세대 CPTED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CPTED의 본질은 시야확보나 거리의 환경개선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점을 환기하며, 지역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 구조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구조라고 하였다. 따라서 2세대 CPTED는 지역의 물리적 요소가 아닌 이러한 사회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aville과 Cleveland(1997)가 제시한 2세대 CPTED의 네 가지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은 사회적 유대이다. 이 원칙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활발히 관련활동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유대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 번째 원칙은 지역 내 구성원들 간 연결망 구축이다. 지역 내 구성원은 정부기관, 사업가,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목적은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고 잠재적 범죤자의 범죤활동을 단념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이다. 지역사회의 문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 안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환기한다. 네 번째 원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소들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역사회가 스스로 이런 능력을 갖추었을 때 주민 결속을 이끌 수 있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2세대 CPTED 역시 사회해체이론에서 지역 범죄를 낮추기 위한 핵심요인으로 지목하는 주민 간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의 성공요인

지역수준 범죄편차를 설명하는 주요이론들은 모두 범죄예방에 있어 주민의 의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일련의 연구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이 성공적이기 위한 요인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Bursik & Grasmick, 1999; Skogan, 1988). 이들이 제시한 성공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Skogan, 1988). 범죄예방에 있어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확립된 사실이지만, 실제로 주민을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주민 참여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단기간 의욕을 증진시키는 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전영실(2005)이 450명의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방범대원의 참여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동네주민에 대한 봉사’, ‘동네의 안전 유지’였으며, ‘경찰활동을 돕기 위해’, ‘동네 주민과 어울리기 위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주된 동기가 어떠한 이익이나 인센티브가 아닌 봉사 및 안전유지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단기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동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범죄예방 활동은 다른 활동의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Bursik & Grasmick, 1999). 범죄예방 활동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내세울 경우, 참여 주민들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기도 하다. 범죄발생에 대한 소식만을 지속적으로 접한다면, 일부 주민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다 크게 느끼게 되며, 서로 불신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초에 참여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중도에 이탈하게 되어 주민 참여 단체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5.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해체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CPTED 등 지역 수준 범죄율의 편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범죄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선행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세 이론 모두 처음부터 주민의 참여 정도를 지역범죄율의 편차를 설명하는 직접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애초에 이들 이론에서 범죄의 원인으로 주목했던 변수들은 주민의 참여와 무관한 사회구조적,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이었다. 사회해체이론의 경우, 처음에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으로서 가난, 잦은 거주이전, 주민구성의 이질성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수들에 주목하였다. 깨진 유리창 이론 역시 주민 참여와 무관한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와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CPTED 또한 사회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던 학계의 경향에 대한 반성적 시각에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범죄와의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하지만 세 이론 모두 이러한 사회구조적, 물리환경적 요인이 주민간의 유대, 거주민의 비공식통제, 지역 주민들의 집합적 효능감과 같은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매개변수들을 통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국, 지역 수준 범죄율의 편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주민의 의지와 참여가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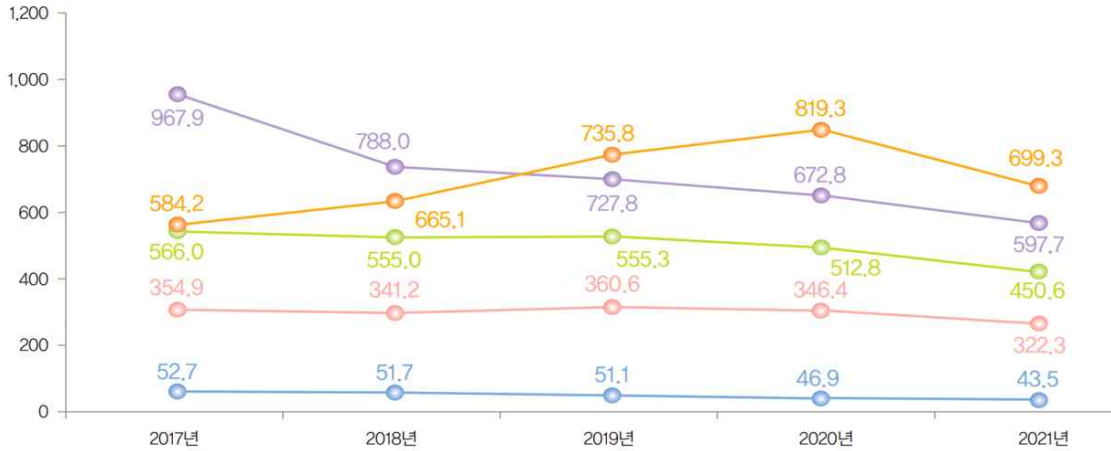
한편, 범죄예방 활동에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어떻게 하면 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범죄예방활동이 다른 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행해질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Ⅲ. 현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의 문제점

1.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부적합

현재 주민참여 범죄예방의 문제점 중 하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방식이 변화하는 범죄양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절도, 폭력 등 전통적 형태의 소위 ‘길거리 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불법촬영, 마약, 개인정보유출, 스토킹, 신종 보이스피싱과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통적 형태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는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비 추이(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한편 마약범죄의 경우, 2013년 기준 단속 인원수는 9,764건에 불과하였으나,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현재 약 두 배에 가까운 18,395명에 이르렀다(김보람, 2023). 특히 10대, 20대의 마약류 사용이 크게 늘어 2013년 기준 0.6%에 불과하던 10대 사용자는 2022년 현재 2.6%까지 4배 이상 치솟았으며, 20대 사용자도 2013년 기준 10.3%에서 2022년 기준 31.6%까지 급증하였다(김보람, 2023).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마약 사용의 증가는 마약 거래 방식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기존에는 지인을 통한 인편 중심의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다크웹, SNS 등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소위 ‘던지기’ 수법 등을 이용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접촉이 없이 마약이 전달된다. 또한 구매의 대가 역시 암호화폐, 대포통장 등 추적이 어려운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보람, 2023).

이와 같이 마약의 유통이 쉬워지고 젊은 층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물 성범죄 감정의뢰 사건은 지난 2017년 1,274건에서 2021년 2,53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양성으로 판정된 사례 또한 2017년 286건에서 2021년 50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파이낸셜뉴스, 2023. 03.26.).

불법촬영 범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하여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2018년 기준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6,212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2년 9월 현재까지만

5,118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TBS뉴스, 2022.10.17.).

한편, 장소적 특징과 무관한 관계 폭력 범죄 역시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되어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는 이르나, 112에 신고되는 스토킹 범죄 건수는 매월 2000건을 상회하고 있다(한국일보, 2023.03.14.).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범죄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범죤예방의 근간을 이루는 자율방범대 활동은 절도, 폭력 등 전통적 범죤예방을 목적으로 한 거리 순찰 중심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나 여성안전지킴이 활동 등 다른 형태의 주민참여 범죤예방 프로그램 역시 이 같이 변화하는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거리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중심의 범죤예방 활동 역시 일정 부분 필요하겠으나,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범죤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찰의 보조자에 불과

지역 범죄 예방에 관한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주민 스스로에 의한 비공식 통제가 범죄 예방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해체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2세대 CPTED는 공통적으로 주민을 단지 경찰이라는 공식적 통제수단의 보조자가 아닌 지역 범죄 예방의 핵심 요인으로 본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따르면, 경찰, 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주민들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인 범죤예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주민참여 활동 방식을 보면 주민들을 지역 범죤예방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의 의문이다. 대표적인 주민참여 활동 단체인 자율방범대조차 그 역할이 모호하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으로 순찰 및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기타 관련 기관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합동순찰이나 캠페인 등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범죤예방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주민참여 범죤예방 활동은 경찰과 참여 주민간의 양자 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경찰이 지역의 범죄 취약 요인들을 자율방범대 등 범죤예방활동 참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참여 주민은 이를 참조하여 순찰 등 범죤예방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범죤예방활동 참여 주민과 범죤예방활동의 수혜자인 일반 거주민 간에 직접적인 소통은 일어나지 않으며, 자율방범대는 단지 경찰이 지정해 주는 역할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조자의 역할에 그치고 만다.

따라서 경찰을 통한 주민들이 지역 안전의 책임 있는 주체적 일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 단체가 일정부분 재량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주민 단체와 지역 거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시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낮아지는 주민 참여

주민참여 범죄예방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주민 단체는 자율방범대이다.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자율방범대는 2023년 4월 27일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성격, 운영, 관리,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의미한다(「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즉, 자율방범대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적 단체의 성격을 지닌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세대와 무관하지 않겠으나, 주민들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한 것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주민들을 공적인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책은 다소 미비하다. 비록 법 제1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 교육, 훈련, 포상 등의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재량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방범활동 등을 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재량사항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망, 부상으로 이어졌을 때의 보상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한 활동인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기는 어려우나, 실질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도의 지원책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소결

현재 주민참여 범죄예방은 다양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증가하는 신종범죄 및 관계폭력 등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전통적 순찰 활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찰 등 공식 통제기관의 보조자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 또한 주민 참여를 유도할만한 유인책 역시 제대로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참여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을 개관하고, 그 특징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IV. 소셜 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

1. 외국의 사례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주로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Springclare Crime Prevention Group의 경우 페이스북(Facebook)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Whatsapp Neighborhood Crime Prevention Group의 경우 왓츠앱(Whatsapp)이라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은 기존의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첫째, 일부 적극적인 주민들만 참여하던 전통적인 방식의 범죄예방활동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둘째, 절도, 강도 등 전통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노선을 순찰하던 방식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지역 안전 정보 및 신종범죄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보다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다. 셋째, 참여 주민들은 단지 경찰의 치안 보조인력으로서 활동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죄 및 안전 현안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보다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참여에 대한 부담이 적다. 개인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오프라인 순찰활동 등에 참여해야 하는 전통적 방식에 비해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활동그룹의 활동방식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별, 지역별로 주민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체적으로 이웃 감시 조직을 구성한다. 이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조직을 구성한 후 해당 경찰관련부서에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마을에 낯선 인물이나 차량, 범죄 의심상황이 발생하면 소셜미디어에 글과 사진을 업로드한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과 사진은 가입한 모든 주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주민 중 누군가가 해당 인물이나 차량을 발견하면 그 위치나 인상착의, 행동, 이동방향 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댓글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 특별한 범죄행동이 없으면 각자 조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지만, 필요한 경우 지역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신종범죄에 대한 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토론하며, 범죄와 무관한 생활정보 등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증진하기도 한다.

호주 Springsclare crime prevention group에 올라온 포스팅과 댓글의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공유가 일어나는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어체로 작성된 원문에 설명을 덧붙여 재구성하였다(Wood & Thompson, 2021).

<포스팅>

방금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제 차 바로 옆에 어떤 사람이 차를 대고는 내려서 휴대폰 라이트로 제 차안을 살펴봤어요. 저는 집 안에 있다가 창문을 통해서 보고 깜짝 놀라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차를 타고 달아나더라고요. 누가 이 수상한 차 정보 더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1> 혹시 그 차 웨건 차량인가요?

<댓글2> 저도 수상한 웨건 차량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00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얼마 전 새벽 네 시에 제 집 앞에 수상한 은색 웨건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어서 갑자기 차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댓글3> 저는 000에 사는 사람인데요. 며칠 전에 제 옆집 아저씨 차 창문이 다 깨지고 그 안에 있던 공구들을 다 도둑맞은 적이 있어요. 아마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네요.

<댓글 4> 우리 집에 도로를 비추는 CCTV를 달아놓았는데 확인해 볼게요. 그게 몇 시쯤이죠?

<댓글 5> 내가 지금 그 차 찾으려고 00구역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어요

<댓글 6> 수고많으시네요. 저는 그럼 00구역으로 한 번 돌아볼게요

위 사례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범죄예방활동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군가가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해당 지역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리면, 단체에 가입한 다른 주민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댓글의 형태로 제공한다. 일부 주민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포스팅과 댓글을 살펴본 후, 지역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또한 그 간의 논의를 지켜본 다른 주민들은 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다음으로는 해당 사례를 통해 나타난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의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죤예방활동의 특징

Wood와 Thompson(2021)의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죤예방활동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 기반 활동은 한 사람의 경찰관이나 한 사람의 주민이 하나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집단지성을 활용한 범죤예방활동이다. 누군가가 지역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이나 범죤의심 상황을 포스팅하면 많은 이들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댓글의 형태로 추가 제공한다. 즉, 집단의 집합적인 정보에 기반한 범죤예방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건해결에 필요한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즉 소셜미디어의 존재 덕분이다.

둘째, 지역 내 감시를 촉진한다. CPTED에서 제시한 원리 중 하나인 자연적 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아야 한다. 하지만 단지 유동인구의 숫자가 자연적 감시의 효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더라도 길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관심이 없거나, 사건의 맥락을 모른다면 어떠한 개입을 하기 어렵다. 소셜미디어 상에 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그 사건의 맥락이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이는 마치 길거리에서 사건의 맥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들이 동시에 그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오프라인 상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고지한다던가, 일대일로 사람들을 접촉하며 사건 내용에 대해 알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상에 누군가가 그 글을 올린다면 순식간에 일대 다수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맥락을 전파할 수 있다. 이러한 신속한 전파는 사람들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조건이 된다.

셋째, 특별히 누군가가 나서 역할을 배분할 필요가 없이 회원들은 포스팅과 앞서사람의 댓글을 보고 각자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Wood와 Thompson(2021)은 앞서사람의 발자취를 따른 활동(stigmergy)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룹 회원들은 누군가가 올려놓은 정보들을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판단하고 움직인다. 즉, 소셜미디어상에 올려놓은 앞서사람의 발자취가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위 사례에 나타난 댓글 중 주목할만한 것은 <댓글5>와 <댓글6>이다. 앞선 포스팅과 댓글에서 차종과 색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자, 적극적인 회원 한명이 스스로 특정 구역을 순찰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자 다른 회원은 그 회원이 가지 않는 구역으로 순찰을 돌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듯 주민들은 큰 부담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변 순찰을 도는 방식으로 필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이나 불신이 증가할 수 있다. 위 세 가지 특징이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의 긍정적인 면이라면, 이 네 번째 특징은 일종의 역효과라고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지역의 불안요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 즉,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범죄예방활동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과도한 경계심을 야기하고,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과도한 범죄두려움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강지현, 2019.; 이성식, 2000). 일부 주민은 이러한 이유로 도중에 그룹에서 이탈하기도 한다.

이상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은 집단지성에 의한 자발적 활동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자연적 감시를 촉진한다. 또한, 앞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주민 각자가 필요한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서로 간에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V. 결론 및 제언

지역 수준 범죄를 설명하는 다양한 범죄학 이론은 주민의 참여가 범죄예방의 핵심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해체이론은 주민 간 사회적 유대, 주민 스스로의 비공식적 통제, 주민의 집합적 효능감이 지역 범죄율의 차이를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깨진 유리창 이론 역시 무질서가 주민 간 사회적 유대와 비공식적 통제를 약화시켜 더 큰 범죄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CPTED 역시 물리적, 환경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간 유대와 결속을 강조하는 2세대 CPTED로 진화,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별 범죄의 편차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주민의 참여에 의한 비공식적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주민참여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역 치안을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많은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 간 관계를 전제로 한 관계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전통적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은 공식적 범죄통제기관인

경찰의 보조자적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범죄예방을 필요로 하는 일반주민들과의 상시적 소통 창구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결국 최근의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인 범죄예방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형식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이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Skogon, 1988). 주민 참여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생명은 사실상 주민의 참여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일시적인 참여도를 높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보다는 경찰의 지나친 관리와 감독, 일방향의 정보제공, 개개인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임무부여 등 관 주도의 운영방식이 주민참여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에게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주민 각자가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둘째,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범죄예방활동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달리 표현하자면,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예방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내세울 때 더욱 효과적이다(Bursik & Grasmick, 1999). 범죄예방만을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다보면 주민 간 불신이 증가하고 범죄 두려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활동에 대한 참여 주민의 피로감이 증가하여 중도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민 공동체의 여러 활동 중 하나로 범죄예방활동을 끼워 넣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주민 간 친목 모임, 생활정보 공유모임, 취미활동 공유 모임 등 보다 가벼운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민 공동체에 범죄예방활동을 부수적인 활동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주민참여 범죄예방에 대한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최근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기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소통, 협력할 수 있는 유용한 매체이다. 범죄와 관련된 의심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누군가가 해당상황을 포스팅하면 가입된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자발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포스팅과 댓글을 본 주민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가 더 쉽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소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수와 다수가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이는 마치 길거리에서 많은 눈이 해당 사건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무전기와 같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무전 내용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현장사진과 상세한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PTED의 핵심 요인인 자연적 감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경찰 또는 리더의 특별한 지시 없이 앞서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자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과거 오프라인 활동보다 자율성이 보장되며, 각 주민들은 앞서사람이 올려놓은 발자취(포스팅 및 댓글)를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제공한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각 참여자들이 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상에 범죄와 관련된 포스팅이 지나칠 경우에는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여 도중에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종합해 볼 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은 오프라인 활동 중심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소셜미디어 기반 범죄예방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틈틈이 지역 사회의 문제나 신종범죄의 위험성을 업로드하여 온라인상에서 주민들의 토론과 참여를 유도하는 넛지(nudge) 형태의 개입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활동이 활성화된 온라인 커뮤니티나 회원들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인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 온라인 공동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현재 지역단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맘카페, 투자정보카페나 학부모 친목모임, 대학생 온라인 게시판 등과 연계하여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역의 안전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논의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이는 특히 범죄예방활동이 부수적인 목적이 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Bursik & Grasmick, 1999)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공동체에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자연스러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오로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해 범죄두려움이나 주민 간 불신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주민의 참여는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다. 하지만 오프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기도 어렵다.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애착을 갖고 비공식적 통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최근 외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자치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주민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지현, 2019, “1인 가구의 범죤두려움에 관한 연구: 가구유형별 범죤두려움 수준과영향요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22-54.
- 김보람, 2023, “마약범죤 수사, 기소, 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070호.
- 이성식. 2000.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죤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 133-159.
- 전영실, 2005,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실태 및 활성화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5-2: 13-229.

2. 국외 문헌

- Bursik Jr, R. J., and Grasmick, H. G., 1999, *Neighborhoods & crime*. Lexington Books.
- Jeffery, C.R., 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everle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arkowitz, F. E., Bellair, P. E., Liska, A. E., and Liu, J., 2001, “Extend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Model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hesion, disorder, and fear”, *Criminology*, 39(2): 293-319.
- Merry, S. E., 1981, “Defensible space undefended: social factors in crime control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Urban Affairs Quarterly*, 16: 397 - 422.
-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NY: McMillan
- Park, R. E., and Burgess, E. W., 2019, *The c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mpson, Robert J. and Stephen W. Raudenbush,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603-51.
- Sampson, R. J., Raudenbush, S. W., and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aville, G., and Cleveland, G., 1997, *2nd generation CPTED: an antidote to the social Y2K virus of urban design*. In 2nd Annual International CPTED Conference, Orlando, FL, 3-5.
- Shaw, C. R., and McKay, H. D.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 Skogan, W. G., 1988, "Community organizations and crime", *Crime and justice*, 10: 39-78.
- Weisburd, D., V. Uding, C., Hinkle, J. C., and Kuen, K., 2023, "Broken Windows and Community Social Control: Evidence from a Study of Street Segm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00224278231168614.
- Wilson, J.Q. and Kelling, G.L. 1982, "Broken Windows: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Atlantic Monthly*, 249 March: 29 - 38.
- Wood, M. A., and Thompson, C., 2021, "Crime prevention, swarm intelligence and stigmergy: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of social media-facilitated community crime preventio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61(2): 414-433.

3. 기타 문헌

경찰청, 2023, 범죄통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파이낸셜뉴스. 2023.03.26. 약물 성범죄 급증하는데...마약 강제투약 가중처벌 없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3261940497363>.

TBS뉴스. 2022.10.17. 불법촬영 범죄 5년간 2만8천건...연평균 5천6백건 달해.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80591&seq_800=20473281.

한국일보. 2023.03.14. 스토킹 '접근금지' 무시 일쑤, 피해자는 공포... '신당역 살인'반년, 달라진 건 없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1307590002755>.

Social Media-Based Resident-Participating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the Role of the Municipal Police

Kim, Joong-gon

[Abstract]

Major criminological theories explaining neighborhood-level crime differences consistently point out that residents' activities are a key factor in crime prevention. In addition, prior research suggests two conditions that can lead to successful residents'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First,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should be guaranteed. Second, crime prevention should be an incidental purpose of the residents' community. Meanwhile, the current neighborhood watch programs have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 activities have focused disproportionately on the patrol to cope with the street crime. This type of activities have limitations to properly cope with new types of crime. Second, there has been a lack of effective activities by staying in the position of an assistant to the police. Thir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re decreasing. To solve these problems, social media-based resident-participating crime prevention activities need to be considered. The social media-based activitie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local problems are solved with collective intelligence. Second, they promotes surveillance through real-time communication between multiple and multiple people. Third, voluntary activities are carried out following the prior posting and the comments about an event. Fourth, there is a possible side effect that those activities can increase the fear of crime and the distrust among residents. The municipal police needs to seek an appropriate model for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nvolving resident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vide guidelines so that residents can conveniently create a new activity group. Also, nudge-type intervention can be considred,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on new crimes and inducing discussions on local pending issu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work with existing residents communities that pursue other purposes.

Key-Words: crime prevention, social media, municipal police, residents' participatin, collective efficacy

